

IBREA REPORT

한·미 지구경영 라운드테이블 공생을 위한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을 모색하다

Volume 17 | October 2025 [국문]

목 차

I. 한·미 지구경영 라운드테이블 행사 개요

[주제발표]

II. 개인 영양을 넘어 지구 영양으로 확장되는 패러다임 전환

– 서호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학과장)

III.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홍익인간 – 지구경영을 위한 정치철학의 단초

– 김지인 (국제뇌교육협회 국제협력실장 / 지구경영학 박사)

[교육과정 소개]

IV. IBE 지구경영대학원의 교육과정 – 뇌교육 기반 글로벌 리더 양성의 학문적 모델

– 임혜란 (Institute of Brain Education Graduate School, Chief Academic Officer)

V. 지구경영 융합전공과 뉴질랜드 프로젝트 – 뇌교육 기반 글로벌 리더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장래혁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학과장 / 지구경영 융합전공 책임교수)

VI. 종합 의견과 마무리 논의

I. 한·미 지구경영 라운드테이블 행사 개요

2025년 9월 25일, 국제뇌교육협회(IBREA)·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글로벌사이버대학교·Institute of Brain Education Graduate School(이하 IBE 지구경영대학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한·미 지구경영 라운드테이블>은 한국에서 출발한 ‘지구경영학(Earth Management)’의 학문적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첫 공개 포럼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발족한 지구경영 국제학술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관련 대학과 기관들이 지구경영학의 학문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이론적 기반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IBE 지구경영대학원은 각기 다른 지역과 교육 환경 속에서 ‘뇌교육에서 지구경영으로의 확장’을 추구해 왔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이러한 학문적 비전을 상호 연결하는 첫 협력의 장이 되었다.

공병영 총장(글로벌사이버대학교·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한·미가 함께 지구경영 포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쟁과 생태계 위기, AI 시대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에서 시작된 지구경영학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은 책임 있는 지구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며, 글로벌사이버대학교가 추진 중인 ‘뉴질랜드 지구경영 리더십 과정’을 통해 미래형 실천대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오늘 포럼이 지혜와 비전을 모아 지구에 공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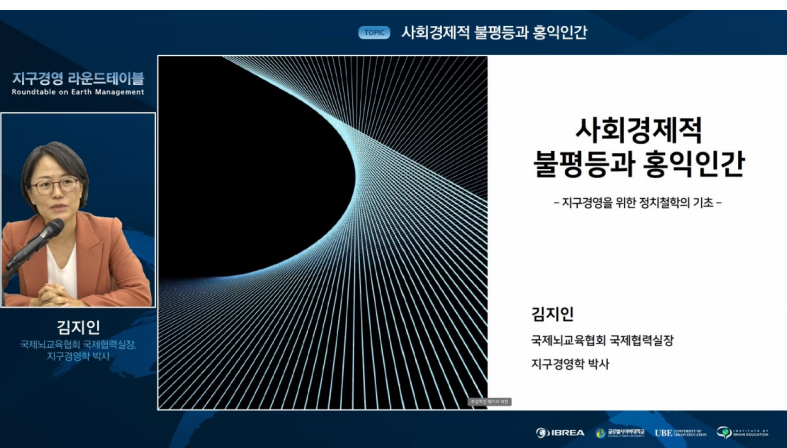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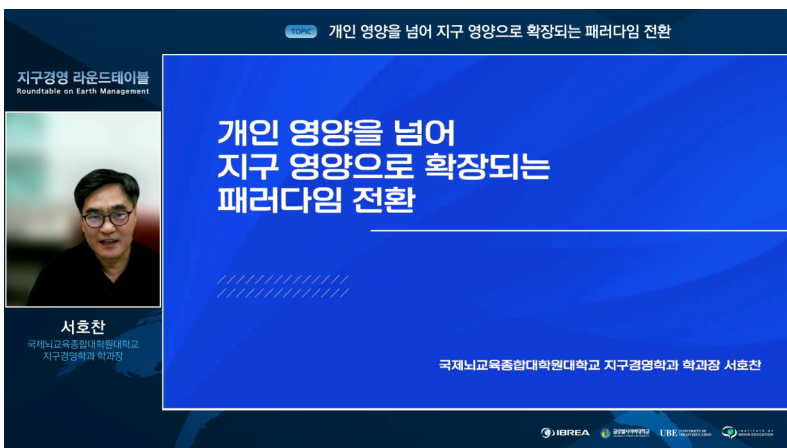
이정환 원장(IBE 지구경영대학원)은 이어진 환영사에서 “뇌교육이 개인 차원의 선택과 결정이라면, 지구경영은 조직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선택과 발전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인간의 모든 선택은 뇌의 기능적 구조에서 비롯된다”며, 지구경영학은 이러한 인간의 의식 구조를 사회적·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은 시도이지만 인류 전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학문적 흐름이 될 것”이라며 함께한 모든 연구자와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포럼은 △주제발표 △교육과정 소개 △종합토론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서호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인영양을 넘어 지구 영양으로 확장되는 패러다임 전환’을, 김지인 국제뇌교육협회 국제협력실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홍익인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교육과정 세션에서는 임혜란 IBE 지구경영대학원 CAO가 뇌기반 온라인 석사과정의 비전과 체계를, 장래혁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과장이 ‘청년 지구경영 리더십(뉴질랜드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현지 참여 학생 이지은·김채영의 생생한 발표는 지구경영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확장되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지구경영학은 2016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에 지구경영학과가 신설되면서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이 잇달아 개설되며 교육의 폭이 확장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학문적 흐름을 결집시켜, 한국발 지구경영학이 세계적 담론으로 발전하는 도약의 전환점이 되었다. 앞으로 지구경영 국제학술위원회는 정기 라운드테이블과 공동포럼을 중심으로 지구경영학의 교육·연구·실천을 아우르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지구경영 라운드테이블은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인류 문명의 방향을 ‘대립에서 공생으로’ 전환하는 실천적 논의의 장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한국에서 시작된 지구경영학의 담대한 도전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육 현장과 연구 네트워크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II. [주제발표 1] 개인 영양을 넘어 지구 영양으로 확장되는 패러다임 전환

서호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학과장)

I. 서론

현대의 식생활은 단순한 영양 섭취 행위를 넘어, 지구 환경과 인류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 영양학은 칼로리와 영양소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왔지만, 기후변화·생태계 파괴·식량 불균형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중심의 영양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 발표에서는 개인의 영양 중심에서 지구 전체를 고려하는 새로운 식생활 패러다임, 즉 '지구 영양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이 패러다임은 인간의 식습관이 지구 생태계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며, 공생(共生), 수승화강(水昇火降),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세 가지 개념을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지구건강식단(Planetary Health Diet)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론

2.1 식품의 기능 확장: 1차에서 4차로

식품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1) 1차 기능은 에너지와 영양의 공급, (2) 2차 기능은 맛·향·색을 통한 기호성 향상, (3) 3차 기능은 면역 강화와 질병 예방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4차 기능, 즉 '지속가능성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식품이 환경 보전과 미래 세대의 건강에 기여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식단 선택이 지구의 기후·자원·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영양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2.2 지구 영양 패러다임의 세 가지 핵심 요소

(1) 공생(共生)의 감수성

공생은 모든 생명이 상호 의존하며 유지되는 자연의 근본 원

리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또한 이 원리에 기반한다. 공생 감수성은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능력으로, 한 지역의 환경 훼손이 지구 반대편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감수성의 회복은 개인의 선택이 곧 지구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의식적 전환의 시작점이다.

(2) 수승화강(水昇火降) 원리와 의식 확장

수승화강은 인간 내면의 에너지 순환과 자연의 조화로운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이다. 신체와 의식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감각은 열리고 의식은 확장되며, 공감과 이타심이 강화된다. 올바른 식습관과 신체 수련을 통해 내면의 순환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개인의 의식은 사회적·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3)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

홍익인간 정신은 도덕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뇌에 내재된 보편적 본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생 감수성과 내면의 조화가 성숙할 때, '널리 인간과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이러한 정신은 지구 시민 의식으로 확장되어, 개인의 삶을 넘어 지구경영적 실천으로 연결된다.

2.3 지구 건강 식단(Planetary Health Diet)

지구 건강 식단은 인류 건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식단 모델이다. 채소·과일은 하루 500g 이상 섭취하고, 통곡물·콩류·견과류는 충분한 섭취를 권장한다. 붉은 고기는 주 1~2회 이하로 제한하며, 설탕 및 정제식품은 최소화한다. 이 식단은 개인의 비만·당뇨·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감소·수자원 절약·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구적 차원의 이점을 제공한다.

2.4 실천 전략

지구 영양 패러다임은 일상의 실천을 통해 구체화된다. 마인드풀 이팅(Mindful Eating),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로컬푸드

및 제철식품 소비, 유기농·친환경 제품 선택은 개인의 건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구체적 행동 지침이 된다.

III. 결론

지구 영양 패러다임은 개인의 영양 관리에서 지구적 책임으로의 사고 확장을 요구한다. 공생의 감수성, 내면의 조화, 홍익 인간 정신은 그 철학적 기반이며,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

으로 지구 건강 식단과 마인드풀 이팅 전략이 제시된다.

이 패러다임은 개인의 건강 증진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지구 생태계의 균형 회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생활 윤리를 제시한다. 결국 한 개인의 식사 선택은 지구의 미래와 직결된다. 인간과 지구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임을 자각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지구경영 시대의 새로운 윤리이며, 본 발표가 제안한 ‘지구 영양 패러다임’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천적 철학이라 할 수 있다.

Ⅲ. [주제발표 2]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홍익인간 — 지구경영을 위한 정치철학의 단초

김지인 (국제뇌교육협회 국제협력실장 / 지구경영학 박사)

Ⅰ. 자유민주주의의 내적 한계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21세기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체제 속에서 경제적 풍요를 이뤘지만, 동시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내재하는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번 발표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본질적으로 재산권과 사적 이익 추구의 권리를 절대화한다는 점, 둘째, 정치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사사화(privitization)되었다는 점, 셋째, 경쟁의 불공정함을 능력주의로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적 차원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철학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발표는 먼저 뇌교육에서 출발한 지구경영학이 사회적 변혁(transformation)을 접근하는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 홍익인간 사상을 근대 정치철학의 맥락에서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조소앙과 안재홍의 사상을 검토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철학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뇌교육과 지구경영: 인간 내면에서 출발하는 사회 변혁

뇌교육은 인간의 뇌를 단순한 생리적 기관이 아니라, 내·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식적 정보처리 기관으로 이해한다. 그 최종 목표는 자신의 뇌를 활용하는 정보의 주체가 되어, 홍익인간의 철학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

‘뇌운영시스템 5단계(Brain Operating System 5 Steps)’는 교육 수준이나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뇌를 활용하여 정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뇌교육의 핵심 원천기술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선택의 주체라는 자각이 싹트기 시작한

다. 지구경영학은 이러한 개인 간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탐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경영학은 국가나 국제기구의 제도적 역할보다는, 인간의 내적 성숙을 기초로 한 문명적 변혁과 시민적 실천의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Ⅲ.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와 근대 정치철학의 재해석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틀로서 큰 성과를 이루었으나, 그러나 그 구조적 특성은 오히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설을 안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철학의 근원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가치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소앙(趙素昂)의 삼균주의(三均主義)와 안재홍(安在鴻)의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는 이러한 전환의 정치철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조소앙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삼균주의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이념을 체계화하였다. 그의 사상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을 ‘균등’으로 재해석하여,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통합적으로 추구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소극적 평등과 사회주의의 획일적 평등을 넘어, 능력과 분배의 균형을 지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평가된다.

민세 안재홍은 단군조선의 ‘다사리(多事理)’ 이념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였다. 그는 다사리 이념의 민주주의 내용을 ‘만민총언(萬民總言)과 만민공생(萬民共生)’의 정치로 정의하며, 정치를 개인의 이해관계 경쟁이 아닌 공동체의 생명적 협력의 장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상은 오늘날 참여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의 정치철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를 제공한다.

결국 조소앙의 ‘균등’과 안재홍의 ‘공생’은 모두 홍익인간 사상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이라는 정신적 근원을 공유하며, 지

구경영의 철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IV. 현대적 적용: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본소득제의 재해석

기술혁신과 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와 분배의 구조는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 UBI)가 새로운 사회계약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UBI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최소한의 생존과 자율적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균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철학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는 인간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더 나아가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는 개인의 창조물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원·데이터·환경에 대한 공유 가치의 환원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지가치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의 제도는 지구적 책임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지구경영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V. 홍익인간 사상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철학의 방향

지구경영 시대의 정치철학은 자유민주주의가 전제한 '자유'의 개념을 재해석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균등'의 가치를 복원하며, 정치를 공공선 실현의 장으로 회복하는 데 있다.

홍익인간의 정신은 이러한 전환의 근본적 사상적 토대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적 권력을 향유하며 대립이 아닌 공생을 지향하는' 다사리의 정치이념은 지구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의 모델과 직결된다. 궁극적으로 지구경영학은 인간의 뇌와 의식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개인과 사회, 국가와 지구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문명철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교육과정 소개 1] IBE 지구경영대학원의 교육과정 — 뇌교육 기반 글로벌 리더 양성의 학문적 모델

임혜란 (Institute of Brain Education Graduate School, Chief Academic Officer)

1. 뇌교육과 지구경영을 위한 학문적 장(場)

IBE 지구경영대학원은 뇌교육(Brain Education)과 지구경영(Earth Management)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 지구적 지속가능성의 실천을 연결하는 고등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다. 2023년 9월 개설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학습자에게 온라인 기반의 석사과정을 제공하며, 뇌교육을 통한 사회 혁신과 글로벌 리더십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미션과 비전

IBE 지구경영대학원의 사명은 “뇌교육을 바탕으로 대학원생과 평생학습자에게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전인적 웰빙(holistic well-being)과 리더십, 그리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특히 IBE 지구경영대학원의 교육 모델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변혁적 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의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이 스스로의 뇌의 창조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개인의 내적 성숙이 사회적 혁신으로 확장되는 교육적 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이러한 비전은 세 가지 중점 방향으로 구체화된다:

- 1) 뇌교육과 지구경영 철학을 갖춘 리더 양성
- 2) 뇌교육 효과 및 지구시민 활동의 학술적 기반 구축
- 3) 학생 주도 체험학습과 사회 공헌을 통한 실천적 교육기관으로의 성장

3. 지구경영 석사과정

지구경영 석사과정(M.S. in Regenerative Earth Management)은 공통필수 과목(뇌교육 원론, 지구경영 원론, 글로벌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통해 뇌교육의 원리·응용과 지구경영의 철학·실행 가능성을 체계화하고, 리더십 기반의 실천

역량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후 전공별 필수 과목(환경 문제와 지속가능성, 공중 보건 위협과 접근법,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직 변화, 지구경영 응용)과 선택 과목(글로벌 경제의 진화, 형평과 포용, 갈등 해결의 원리와 실천, 뇌교육 지도법 등)을 이수하며, 최종적으로 캡스톤 졸업 프로젝트를 수행해 학습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로 구현한다. 교육은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행 과정에서의 소통·조직관리·리더십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다.

교육 내용은 개인·사회·지구 차원의 통합적 건강을 지향한다. 개인의 건강과 웰빙은 ‘뇌교육 원론’에서, 사회 전체의 건강은 ‘공중보건의 위협과 접근법’에서, 지구 건강은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에서 다룬다. 이 변화를 뒷받침하는 조직 차원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직변화’를 통해 실행 프레임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전공응용 영역에서는 캡스톤을 위한 이론·실무 및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준비한다.

선택과목은 관심 분야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진화’와 ‘인류 문명의 탄소발자국’, ‘형평성·포용성·갈등해결의 원리와 실천’, ‘보조금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을 제공하며, 뇌교육 심화 적용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뇌교육 지도법’을 전공선택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SDGs 관점의 분석 능력과 대내외 자원 동원 역량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지구경영 실천 역량을 함양한다.

4. 뇌교육 석사과정

인간의 뇌를 통해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모델이다. 학생들은 뇌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며, 커뮤니케이션·리더십·사회 참여 역량을 함께 개발한다. 전공필수 과목은 뇌과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뇌교육과 인지과정’을 통해 이론과 적용 역량을 확보하고, ‘뇌교육 지도법’에서 이론 학습과 지도 실습을 병행한다. ‘뇌교육과 공감’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관계 핵심

역량으로서 공감의 이론·원리와 실용적 응용을 다룬다.
전공응용 과목은 캡스톤 졸업 프로젝트 수행을 목표로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준비한다.
선택과목은 ‘뇌교육 상담’, ‘코칭의 원리와 실제’, ‘정신건강의 기초’를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뇌교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을 제공하며, 정신건강이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임을 성찰한다. 추가 선택과목으로 형평성·포용성·갈등 해결의 원리와 실천을 포함한다.

5. 실천적 지구경영 리더 양성의 장(場)

IBE 지구경영대학원은 교수진 구성에서도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교육 철학의 핵심으로 삼는다. 교수진은 모두 뇌교육 수련 경험과 전문 학문적 배경을 겸비한 전문가로, 학생에게 지식과 정신을 통합적으로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혜란 박사는 “IBE 지구경영대학원은 이론적 배움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와 인류의 건강한 변화를 실천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뇌교육의 철학과 지구경영의 실천을 하나의 통합적 교육으로 구현한다. 현재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IBE는 앞으로도 ‘지구경영의 교육적 모델’을 확립하는 국제적 플랫폼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V. [교육과정 소개 2] 지구경영 융합전공과 뉴질랜드 프로젝트 — 뇌교육 기반 글로벌 리더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래혁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학과장 / 지구경영 융합전공 책임교수)

1. 지구에 공헌하는 대학의 비전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지구에 공헌하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기존 학문 중심의 대학에서 실천 중심의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지식을 축적하는 공간을 넘어,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실천적 학문공동체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장래혁 교수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대학 운영 전략이 아니라, 뇌교육과 지구경영 철학이 결합된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을 강조하였다.

2.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교육철학과 비전

학교의 교육 목적은 “글로벌 홍익 인재 양성”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축은 문화(K-Culture)와 뇌(Brain)다. 홍익인간 정신을 문화와 뇌를 통해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다. 특히 뇌교육은 인간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술로, 인류의 뇌 활용과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철학은 단순한 교양교육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내적 성장과 사회적 공헌을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실천적 교육 철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한류 선도 대학’이자 ‘뇌교육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3. 미래 교육의 전환: 인간 고유 역량의 회복

OECD 2030 미래교육혁신모델이 제시하듯, 미래 사회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주도형 자기변화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장래혁 교수는 이 흐름 속에서 AI 시대의 교육은 인간 고유의 역량, 즉 자각·감정·공감·의미 창조 능력의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은 AI가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기능을 체험적으로 확장하는 교육모델이라 할 수 있다.

4. 지구경영 융합전공의 학문적 의의

2024년에 신설된 ‘지구경영 융합전공’은 단순한 학과 개편이 아니라, 인간·지구·문명 간 상호의존성을 다루는 실천형 학제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이 전공은 뇌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구경영학을 학부 수준에서 구현한 첫 사례이며, ‘글로벌 마인드-한국적 가치-인간 내적 역량’의 3대 축을 통해 지구적 책임과 개인적 성찰이 결합된 통합 인재 양성 모델을 제시한다.

따라서 지구경영 융합전공은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선 융합적 접근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적 사고력과 실천 역량을 동시에 배양하는 교육 실험의 장으로 기능한다.

5. 교과 구조와 운영의 특징

지구경영 융합전공의 대표 교과는 「지구경영으로의 초대」로, 모든 입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공통 교양과목이다. 이 과목은 세 가지 교육축으로 구성된다: 글로벌 마인드 형성, 한국적 가치 이해, 인간 내적 역량 개발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계시민 교육, 그리고 한민족의 철학·문화·명상 전통을 융합적으로 탐구하며, 자기 인식과 사회적 책임을 통합한 뇌기반 글로벌 리더십을 체득한다.

6. 뉴질랜드 지구경영 리더십 프로젝트

‘뉴질랜드 지구경영 리더십 프로젝트’는 지구경영 융합전공의 교육철학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세대가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구와 자신을 동시에 경영하는 리더십을 체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뉴질랜드 현지

의 생태 환경과 다문화적 학습공동체는 학생들이 뇌교육의 원리를 자기 인식·공감·행동 변화로 전환하는 실험적 장(場)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실천 중심 교육은 단순한 해외연수가 아니라, 지구경영학의 경험적 교육 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참여 학생들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지구시민 의식을 결합하는 구체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7. 지구시민교육의 확장과 미래 과제

지구경영 융합전공과 뉴질랜드 프로젝트는 뇌교육을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이 지구시민교육(Earth Citizenship Education)과 결합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이다. 이는 대학이 단순

히 학문적 지식을 전수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의식 진화를 연구·실천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함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청년 세대가 내면의 성장과 지구적 책임을 결합한 '지구경영리더(Earth Management Leader)'로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지구경영 교육은 개인의 의식 변화와 실천을 통해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VI. 종합 의견과 마무리 논의

이번 지구경영 라운드테이블은 지구경영학이 단순한 이상적 담론이 아니라, 인류 문명 전환을 위한 실천적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각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지구경영의 철학과 교육, 기술, 리더십, 그리고 실천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며, 공통적으로 ‘인간의 의식 진화’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임을 강조하였다.

이정환 원장은 지구경영학의 핵심을 ‘인간의식의 진화와 사회변화의 통합’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철학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한국 선도(仙道) 사상과 천부경에 내재된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철학적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결국 모든 문제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고 인간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만 사회적 조화와 발전이 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스티브 김 이사는 기술문명의 발전과 인공지능 시대의 가치정렬 문제를 언급하며, 기술 그 자체보다 인간의 의식이 어떠한 가치에 기반하여 기술을 사용하는가가 미래 문명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마인드풀 테크놀로지(Mindful Technology)’ 개념을 제안하며,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곧 AI의 가치정렬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기술이 인간의식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며, 이를 통해 지구경영의 실천적 토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갑성 대표는 오늘의 라운드테이블이 보여준 지구경영학의 가능성을 ‘집단지성의 발현’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며, 지구경영학이 이러한 집단적 통찰과 협력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권대환 교수는 지구경영학이 학문적 담론을 넘어 실천적 학문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와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ESG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글로벌 아젠다와의 연계 속에서 지구경영학의 실천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핵심은 결국 사람의

‘의식 변화’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임혜란 박사는 미국 IB 지구경영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소개하며, 지구경영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의식의 과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홍익인간’의 철학을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하는 교육이야말로 지구경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서호찬 교수는 포럼의 전반적 논의가 ‘사람-홍익-실천-지구경영’이라는 키워드로 귀결된다고 분석하며, 지구경영학과의 교육과 연구가 이러한 철학적 기반 위에서 확장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장래혁 교수는 청년 세대가 지구경영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지구경영 리더십 프로젝트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스스로 지구를 경영하는 의식과 리더십을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 곧 지구경영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지구시민 의식을 지닌 AI 사용자와 청년 세대가 늘어날수록, 기술문명 속에서도 인류의 방향이 홍익과 공생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지인 박사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의미를 정리하며, 지구경영학이 학문적 탐구를 넘어 실제 변화를 만들어가는 ‘실천적 지성의 장’으로 발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앞으로의 라운드테이블이 청년 세대와 함께하는 열린 대화의 장으로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논의는 지구경영학이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 지구적 책임을 결합한 새로운 실천철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기술문명 시대일수록 인간의 의식 회복이 더욱 절실하며, 이를 위한 교육·정책·연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구경영 라운드테이블은 학문과 실천, 세대와 지역을 잇는 지적 플랫폼으로 발전하며, 인류 문명의 공생적 전환을 위한 비전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국제뇌교육협회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IBREA)

국제뇌교육협회는 뇌교육 전문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이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뇌교육 전문가들의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2004년 한국에서 설립되었으며, 2006년 교육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 뇌교육을 알리기 위해 2007년에는 해외지부인 **IBREA-Japan**과 **IBREA-USA**가 설립되었습니다. **IBREA-USA**는 이후 독립된 자선단체인 **IBREA Foundation**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 등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뇌교육 도입을 지원하는 비영리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2009년 2월에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한데 이어, 2010년 6월에는 유엔공보국(**UN-DPI**) 공식 **NGO**로 승인받았습니다.



International Brain Education Association
11 Apgujeong-ro 32-gil, Gangnam-gu, Seoul 06023, Korea
Tel +82 (2) 3452 9046
info@ibrea.org
www.ibrea.org
www.facebook.com/braineducation
www.youtube.com/ibrea